감각의 조형술 : 아비투스와 로컬리티 사이*

- 최재서의 국민문학론에 대하여 -

곽은희**

〈차 례〉

1. 들어가며
2. 친밀한 적, 취미
3. '국민문학'이라는 아비투스
4. '로컬리티'라는 전략
5. 나가며

【국문초록】

최재서의 국민문학론은 국민문학에 관한 윤리를 구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작품을 창작하는 작가의 감각과 작품을 향유하는 독자의 감성까지 조형하고자 했다. 규범으로서의 국민문학론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구조와 개인의 행동 사이를 매개하는 아비투스로 자리잡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감각의 조형술은 국민문학의 아비투스가 식민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포스트 식민 시기까지 지속되도록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동한다.

---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5A07042183).

** 영남대학교 기초교육대학 교양교육원

아비투스는 제국이 식민지에 이르는 경로이기도 하지만, 식민지에서 공적 영역으로 이르는 경로이기도 하다. 최재서는 조선문학의 특수성, 즉 '로컬리티'는 제국의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임을 주장하였다. 최재서에게 '로컬리티'는 '국민문학'이라는 공적 영역 안에 '조선문학'을 배치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다. '국민문학으로서의 조선문학'이라는 독특한 로컬리티는 공적 공간(public space)을 확보함으로써 사적인 영역으로 물러나지 않기 위한 방도였다. 최재서가 국민문학론을 토대로 구사했던 프로파간다의 복합적인 면모는 바로 이러한 아비투스와 로컬리티 사이, 그 틈새에 존재한다.

주제어: 감각의 조형술, 제국, 식민지, 틈새, 취미, 아비투스, 감각, 프로파간다, 최재서, 국민문학론, 로컬리티, 로컬

1. 들어가며

이 글은 제국이 식민지를 유인하고, 식민지가 제국을 욕망하도록[1] 만드는 메커니즘의 중심에 '취미'가 자리잡고 있다는 데 주목하여 '취미'와 '프로파간다'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취미'를 경로로 호불호의 감각으로 지속되는 식민지적 무의식에 천착함으로써, '왜 식민 이후에도 식민지가 종식되지 않는가'하는 문제를 해명하고,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최재서의 국민문학론을 '취미'를 초점으로 접근하여, 감각의 조형술을 둘러싼 제국과 식민지 간의 미묘한 긴장을

1) 간디가 지적한 것처럼, 욕망은 제국/식민의 구조를 전체로서 작동하게 한다(빠르타 짯떼르지(Partha Chatterjee) 지음, 이광수 옮김, 『민족주의 사상과 식민지 세계』, 그린비, 2013, p. 183).

살펴볼 것이다. 근대 식민주의의 종결은 무조건적인 자유 시대를 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 지구적 규모로 작동하는 새로운 지배 형식들을 가져온 터,[2] '감각의 조형술'에 대한 조명은 식민 시기와 포스트 식민 시기를 관통하며 존재하고 있는 지배의 실체를 보다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취미'는 제국의 프로파간다가 유지되고 생산되는 데 작동되고 있는 심층적인 지형으로서, 감각과 무의식의 영역으로 하강한 지대를 뜻한다. 일본의 경우, 일찍이 취미의 중요성은 일본이 문명개화에 실패한 이후 개인의 내면에서 서양 문화를 수용할 만한 여지가 없었다는 반성으로부터 대두되었다. 서양 문명을 소화하고 흡수한다는 메이지 일본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미' 교육이 부상한 것이다.[3] 메이지 시대의 취미란, 예술에 대한 개인의 미적 감각이라는 고차원의 수준에서부터 일상 사물에 대한 좋고 싫음이라는 극히 표층적인 수준에까지[4]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왜 취미 교육은 대중들이 서양 문명을 좀더 친숙하게 보다 빨리 내면화하도록 해 주는 경로가 되었을까?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취미는 '즐거움'이 동반되는 자유로운 활동, 자발적인 활동이다. 취미에는 '대상에 대한 호불호(好不好)의 감각'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취미를 향유하는 활동에는 자신의 감각에 맞게 대상을 선택하여 어떠한 행동을 취한다는 심리적·심미적 만족이 수반된다. 취미에 수반되는 '심리적 만족', '정서적 즐거움', '감각적 아름다움'은 식민/포스트 식민을 넘어 지속되는 '지배 형식'을 해명하는 데에도 중대한 착안점을 제공한다.

---

2) 안토니오 네그리(Antonio Negri) · 마이클 하트(Michael Hardt) 지음, 윤수종 옮김, 『제국』, 이학사, 2007, p. 189.

3) 진노 유키(神野由紀) 지음, 문경연 옮김, 『취미의 탄생- 백화점이 만든 테이스트』, 소명출판, 2008, p. 16.

4) 진노 유키, 같은 책, p. 29.

아쉬스 난디(Ashs Nandy)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정치적인 자유를 획득한 순간에도 식민주의는 왜 종결되지 않았는가? 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식민주의와 식민지인의 정신상태 및 심리적인 면모에 주목해야 한다. 식민제도는 사회·경제적 또는 심리적인 보상과 처벌을 통하여 식민지인들이 새로운 사회적 규범과 인식의 범주를 받아들이도록 유인함으로써 영속된다. 아쉬스 난디는 일본은 만주 지방에서 계속적으로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았으며 인도차이나·알제리·앙골라 지역에서 프랑스와 포르투갈도 꽤 오랫동안 약세를 면치 못했다는 점을 들어, 식민주의란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권력과 동일시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5] 아쉬스 난디가 말한 '정신상태로서의 식민주의'에 주목해 볼 때, 식민 지배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심리적 득실에 대한 내적 보상이다.

다음은 최재서의 「새로운 비평을 위하여」(1942. 7.)의 일부이다. 최재서에게 취미는 비평의 출발점이자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 그러면 이러한 비평의 새로운 길을 열어 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다. 하나는 비평이 특성상 보수적이라는 것,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비평이 지나치게 서양에 의존해 왔다는 것이다.
>
> (…) 그것은 비평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취미의 이론화라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 비평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론적 조작을 거치지만, 궁극적으로는 작품의 가치 판단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무의식적이지만 판단의 표준을 제공하는 것은 옳은 의미에서 비평가의 문학적 취미다. 그런데 문학적 취미라는 것은 비평가의 과거에 행해진 모든 문학적 수련 — 독서, 사고, 체험 등 —의 축적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비평가가 읽은 고전의 영향의 총화(總和) — 티보데가 말하는 '고전의 왕국'이다. 그것은 비평가의 문학적 의식을 지배하는 취향의

5) 식민주의의 심리학에 대해서는 아쉬스 난디(Ashis Nandy) 지음, 이옥순 옮김, 『친밀한 적』, 신구문화사, 1993, pp. 11-108을 참조함.

전(全)질서이다.[6]

최재서는 서양에 의존해 왔던 종래의 비평을 비판하고 새로운 비평으로 나아가기 위해, '비평가의 문학적 의식을 지배하는 취향의 전(全)질서'로서의 고전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최재서는 이를 '취미의 이론화'라고 명명하며 정교화하는데, 이것이 어떠한 맥락에 놓여있는가 하는 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중핵에 문학적 전통, 즉 '고전'이 배치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재서의 전체 저작에서 추적해 보면 1938년에 발표했던 「취미론」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데 「취미론」(1938)과 「우감록(偶感錄)」(1942)은 공통적으로 취미와 고전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그 사이에는 불연속 지점이 존재한다. 「우감록」에서 '고전'이란 『고사기』나 『만연집』, 『고금집』 등 "일본 민족의 가치관이나 그 사고방식, 표현 양식 등이 가장 순수하게 보존되어 있는"[7] 일본적 전통을 뜻하지만, 이보다 몇 년 앞서 발표된 「취미론」에서 고전은 취미에 질서를 부여해 주는 것, 즉 문학적 전통 일반을 일컫는다. 최재서가 애초에 「취미론」(1938)에서 말하는 '취미'란 "미각기관이 음식물을 향락 또는 배척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예술작품이나 자연물을 상미(賞味) 또는 배척하는 정신적 능력"[8], 즉 "변별하는 정신기능"[9]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는 「취미론」에서 '취미'의 의미를 개인적인 사소한 취향을 넘어 '비평의 기준과 원리'로 격상시키면서 어떠한 취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점이 대상을 판단하는 데

---

6) 최재서, 「새로운 비평을 위하여」, 1942. 7, 『轉換期の 朝鮮文學』(인문사, 1943), 노상래 옮김, 영남대 출판부, 2006, p. 61.(이하 『轉換期の 朝鮮文學』은 노상래의 번역본을 참고로 하고 『전환기의 조선문학』으로 표기함)

7) 최재서 「우감록(偶感錄)」, 『전환기의 조선문학』, p. 139.

8) 최재서, 「취미론」, 『문학과 지성』, 1938, 여기서는 『최재서평론집』, 청운출판사, 1961, p. 134.

9) 최재서, 같은 글, 같은 책, 같은 면.

결정적임을 강조하였다. "문학적 판단의 표준이란 구체적으론 고전 가운데 구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10]는 대목으로 미루어 볼 때, 최재서에게 취미의 향방을 결정짓는 것은 다름 아닌 '고전'이었다. 여기에는 최재서가 경성제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면서 접했던 서양 고전에 관한 폭넓은 독서가 포함된다.

프로파간다가 취미의 형태로 스며든다고 했을 때, 무엇이 고전으로 자리잡는가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고사기』나 『만연집』을 "일종의 저수지로서 오늘의 국민에게 정신적인 수분을 공급"[11]해 주는 '국민고전'으로 호출하는 것은 프로파간다가 문학적 전통에 대한 근원적인 경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르네상스 시기 식민지적인 팽창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고전 전통의 재탄생을 강조했던 것[12]을 상기해 보면, 중요한 것은 전통이나 고전 자체라기보다 그것이 고전으로 발굴되고 기억되며 망각되는 과정이다. 최재서는 「우감록」(1942)에서 "특히 비평가에게 생명처럼 중요한 것은 일본적 교양의 수득(修得)"[13]임을 강조하는데, 그 '일본적 교양'이 소환되는 맥락이란 "서양류의 개인주의를 반드시 배격해야" 한다는 근대초극 논의와 연관이 있다. 최재서가 '최첨단으로서의 이론'을 더 이상 지향하지 않고 고전과 전통에 바탕을 둔 '취미의 이론화'로 전회한 '사건'은 〈근대의 초극〉 좌담회에서 가와카미 데츠타로(河上徹太郎)가 "지금이야말로 자기 손 안에 있는 서양 문학을 떠나, 이것을 객관적으로 보아야 한다"[14]고 주장한 바

10) 최재서, 같은 글, 같은 책, p. 135(맞춤법은 원문 그대로 표기함).
11) 최재서, 같은 글, 같은 책, 같은 면.
12) Walter Mignolo, *The Darker Side of the Renaissance: Literacy, Territoriality, and Colonization*,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1995, p. vii.
13) 최재서, 「우감록(偶感錄)」, 『전환기의 조선문학』, p. 139.
14) 니카무라 미츠오(中村光夫)·니시타니 게이지(西谷啓治) 외 지음, 이경훈·송태욱·김영심·김경원 옮김, 『태평양전쟁의 사상 - 좌담회 〈근대의 초극〉과 〈세계사적 입장과 일본〉으로 본 일본정신의 기원』, 이매진, 2007,

와 같은 의식상의 전환과 맞물려 있다. 새로운 원리로 떠오른 '전통'이란 〈근대의 초극〉 좌담회에서 도출된 '비서구로서의 자기'이며, "청결한 우리의 전통에 즉(卽)한 말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싶으며, 또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15] 열망을 반영한다. 그것은 서구의 정신적 자양분이 되었던 '그리스·로마 이래의 유럽적 비평 전통'과 대척점에 놓여 있는 동시에 '서양류의 개인주의'로 통칭되는 메이지 시기의 근대를 초극하기 위해 새롭게 부상한 원리이다.

최재서의 작업은 고전과 전통에 대한 감각과 취향을 매개로 근대초극론의 사유를 일상화·감각화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문학을 구축하기 위한 이론적 작업은 '취미'와 결합되면서 연성(soft) 프로파간다로서 정교한 메커니즘을 획득하게 된다. 다음은 『전환기의 조선문학』 서문이다.

> 이 보잘 것 없는 평론집은, 개인적으로는 문예의 세계에서 일본 국가의 모습을 발견하기까지의 영혼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일본말과, 그 예의바름과, 언제나 생기 있는 학문적 호기심과 특히 메이지문학이 좋았었다. 그리고 내가 알게 된 몇몇 내지인과는 아무 거리낌도 없이 사귈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일본을 호흡하고 일본 안에서 성장해왔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하나하나 일본 국가와 연결시켜 생각하려 하지는 않았다. 말하자면, 그것은 취미의 문제이며 교양의 문제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
>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익혀온 것을 새롭게 자신으로부터 떼어내어 의식적으로 일본과 연결시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충격이었으며, 때로는 낯간지러운 일이기까지 했다.[16]

---

p. 111.

15) 니카무라 미츠오(中村光夫)·니시타니 게이지(西谷啓治) 외 지음, 같은 책, 같은 면.

16) 최재서, 『전환기의 조선문학』, p. 3.

인용문은 『국민문학』(1941-1945) 편집주간이었던 최재서가 그간 『국민문학』에 발표한 평론들을 모아 책으로 엮으면서 쓴 머리말의 일부이다. 흥미롭게도 '국민되기'의 기원에 아비투스(habitus)로서의 취미와 교양이 자리잡고 있다. 국민문학론은 신체제 이후 1940년 초반기 『국민문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최재서의 고백에서 국민의 기원은 그보다 훨씬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에게 일본 국가의 모습을 발견하는 일은 어린 시절부터 공연히 마음이 끌리고 좋은, 그리하여 내지와 조선의 경계 역시 아무 거리낌 없이 사라져 버리게 만드는 '취미(taste)'와 '교양'의 문제로 묘사된다. 내지와 조선의 경계를 해체하는 가운데 작동되고 있는 '감각의 조형술'은 앞으로 이 글에서 깊이 따져볼 문제들이다.

2. 친밀한 적, 취미

최재서의 글에서 '문예의 세계에서 일본 국가의 모습을 발견'하는 일은 시국적이거나 강제적인 일로 그려지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어린 시절부터 '막연히' 좋았던, 그래서 항상 호흡하고 성장해 왔던 친밀하고 친숙한 일로 그려진다.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국민문학'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오히려 '충격'일 정도이다. 국민의 기원이 취미와 교양의 문제로 인식될 때 '국민되기'는 의식적인 노력 이전의 것, 즉 감각을 둘러싼 헤게모니의 쟁투 과정으로 귀결된다. 헤게모니란 지배권력이 그 종속자들로부터 자신의 통치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는 전략이므로,[17] 특정한 시대에 '취미'의

17) 테리 이글튼(Terry Eagleton) 지음, 여홍상 옮김, 『이데올로기 개론』, 1994, pp. 158-159.

방향을 조형하는 일은 헤게모니의 작동 과정과 얽혀 있다.

일본 잡지『취미』창간호에 쓰보우치 쇼오(坪內逍遙)가 쓴 글을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대개 이지(理智)의 작용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취미성이 시키는 것이다. 취미성에 바탕을 두지 않은 비판은 냉정하고 형식적이며 감화력이 결핍되어 있다"[18]는 부분이 있다. 취미는 이해하면서 동시에 느끼는 활동, 즉 이성과 감성이 상호작동한 결과인 터, 취미를 향유하는 활동에는 헤게모니의 심리적·감성적 차원이 반영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취미는 미학적 판단의 체계와 질서가 그 안에 각인되어 있으며, 관념상의 가치로 발현되기보다는 육화되어 있는 개별적 성향으로 나타난다. 취미가 일상 속에 밀착되어 있으면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끄는 추동력이 강한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된다. 1938년 발표된「취미론」에는 "이것이(취미가) 과학적 판단과 다른 점은 취미의 기능이 추리적이 아니라 직관적이고, 또 그 결과에 대하여 호악감정(好惡感情)을 일으키는데 있다"[19]든가 "전통의 작용이 항상 무의식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취미의 활동도 무의식적이다"[20]라는 부분이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최재서는 취미가 무의식과 감정의 차원에까지 걸쳐 있는 문제임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취미'가 어떻게 '국민되기'를 위한 프로파간다의 장소로 자리잡게 되었는지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취미의 상위 범주인 놀이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일찍이 호이징하(Johan Huizinga)는『호모루덴스(Homo Ludens)』에서 '놀이'를 '자발적인 행위', 즉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는 행위인 동시에 '무관심성(disinterestedness)'을

---

18) 쓰보우치 쇼오(坪內逍遙),「趣味」,『취미』제1권 제1호, 彩雲閣, 1906. 6. 여기서는 진노 유키(神野由紀) 지음, 앞의 책, p. 38에서 재인용함.

19) 최재서,「우감록(偶感錄)」,『전환기의 조선문학』, p. 135.

20) 최재서, 같은 글, 같은 책, p. 141.

본질로 삼고 있는 활동[21]으로 정의하였다. 『놀이와 인간』의 저자 카이와(Roger Caillois) 역시 취미를 일컬어 "산업문명이 일어난 후 즐거움을 얻기 위해 시작되고 지속되는 무상(無常)의 이차적인 활동"[22]으로 정의한다. 호이징하와 카이와의 정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취미의 본질은 '무상성(無常性)', 즉 일체의 생산활동과 분리되어 있다는 데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취미'에 내재되어 있는 '자발성'은 취미가 프로파간다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취미의 본질적 속성이기도 하다. '무관심성의 정치성'이야말로 취미가 지니고 있는 역설인 셈이다. '취미'는 '자유'와 '무상성'이라는 본질로 인하여, 자유로운 느낌을 유지한 채 주체를 규율화하는 프로파간다의 장소로 전환되기[23]에 최적의 조건을 지니고 있다.

> 사람은 비평을 가지기 전에 취미를 가진다. 정신 발달상으로 보드래도 사람은 위선 취미를 가지고 그 다음에 비평정신이 생겨난다. 또한 작품을 읽을 때에도 위선 취미가 발동되고 그 다음에 비평이 뒤따라 온다. 이것은 비평이 취미의 합리화이기 때문이다.
>
> (…) 그러나 취미가 비평의 출발점 또는 핵심이 되어 있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 비평가 자신의 고백 여하를 막론하고 취미가 없이 비평은 도대체 성립되지 못한다. 취미란 문학적 비평의 본질을 삼는 직관적 판단력 그 자체이니까.[24]

취미는 즐거움을 동반하는 자발적인 행위, 즉 재미있는 활동이

---

21) 요한 호이징하(Johan Huizingga) 지음, 김윤수 옮김, 『호모루덴스』, 까치, 2007, pp. 19-20.

22) 로제 카이와(Roger Caillois) 지음, 이상률 옮김, 『놀이와 인간』, 문예출판사, 1994, p. 70.

23) 이에 대해서는 곽은희, 「전시체제기 놀이의 프로파간다화와 식민지 규율」,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동아시아문화연구』 제50집, 2011. 11. pp. 355-388을 참조할 것.

24) 최재서, 「취미론」, 『문학과 지성』, 1938. 여기서는 『최재서평론집』, 청운출판사, 1960, pp. 139-140.

므로 주체로 하여금 그 활동에 지속적으로 몰입하도록 해 준다. 비평가의 직관과 판단력이 육성되는 것도 몰입을 거치는 동안 고도의 전문성이 축적된 결과이다. 대상에 대한 호불호(好不好)의 감각이 연마될수록 '경계 감각' 또한 첨예해진다. 취미가 '판단의 표준', '변별하는 정신'으로 성립하게 되는 것도 이 지점에서이다. 개인이 지니고 있는 호불호(好不好)의 감각은 차별화 과정을 통해 차이와 경계를 만들어 내고, 자기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관적으로 알게 한다. 이러한 직관적인 앎은 주체를 선택과 실천을 이끄는 데 훨씬 더 효력을 발휘한다.

부르디외(Bourdieu)의 설명에 의하면 이런 직관은 '자기 자신의 자리에 대한 감각', 즉 특정 재화, 사람, 장소로부터 자기 자신을 배제시키는 감각이다. 이 '경계 감각(sens des limites)'이 육화되면, 사회적 필요성은 본성이 되고 그 사람을 움직이는 행동도식이자 신체적 자동화로 전환된다.[25] 경계 감각을 경유할 때 취미는 사적인 취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도면밀한 문화전략의 총체이자 아름다움을 향유·해석·실천하는 체계로 작동하게 된다. '아름다운 것/추한 것', '좋아하는 것/좋아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변별적 감각은 미적 감각인 동시에 '지배/피지배'를 포함한 사회적 감각이다. 그것은 '바람직한 것/바람직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윤리 감각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제국이 식민지의 동의를 확보하고 강화하는 메커니즘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내부에는 '동의'를 사이에 두고 제국과 식민지 간의 미묘한 각축이 일어나고 있다. 제국과 식민지가 각각 '동의'에 이르는 과정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요컨대 '아비투스로서의 취미'는 제국의 프로파간다가 작동하는 경로이기도 하지만, 이와 동

25) 삐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지음, 최종철 옮김,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La Distinction-critique sociale du jugement)』 下, 새물결, 2005, pp. 844-849.

시에 식민지인이 제국의 중심을 향해 나아가는 경로이기도 하다. 최재서가 어린 시절부터 좋았었다고 말했던, "일본말과, 그 예의바름과, 언제나 생기 있는 학문적 호기심과 특히 메이지문학"은 최재서로 하여금 "내가 알게 된 몇몇 내지인과는 아무 거리낌도 없이 사귈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최재서는 제국의 취미를 경로로 제국의 중심부로 진입했으며, 그들의 아비투스를 언어로 삼아 '공적 발언'의 장을 확보했다. 제국의 지배 아래서 제국의 언어로 발언하는 피식민지 작가들을 가리켜 두 개의 혀를 가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면, 즉 모어(母語)의 자연성에서 비켜나 제국을 시야에 넣은 자들로부터 전복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면,[26] 취미는 식민지에게뿐만 아니라 제국에게도 여전히 '친밀한 적'으로 작동한다. 이 문제는 '제국으로부터 식민지로 향하는 아비투스'와 '아비투스에 동의하는 가운데 펼쳐지는 식민지의 전략'을 양방향에서 살필 때 그 실체를 드러낼 것이므로 '제국으로부터 식민지로 향하는 아비투스'를 3장에서, '아비투스에 동의하는 가운데 펼쳐지는 식민지의 전략'을 4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3. '국민문학'이라는 아비투스

> 금일의 작가에게 요청되는 것은 이처럼 국민의식에 의해 충전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꼭 겉으로 드러날 필요는 없다. 요컨대 국민이 철저히 자각하여 항상 국가의 이상을 현현하는 일에 매진해야만 한다. 따라서 국책을 그대로 외우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의의와 가치를 찾아내어, 그것을 사상과 예술 속에 살리는 일이 문인의 직무여야 한다.

---

26) 김철, 「식민지의 복화술사(複話術師)」, 『복화술사들- 소설로 읽는 식민지 조선』, 문학과지성사, 2008, p. 167.

> 이상적으로 말하면 작가는 국민의식을 의식하지 않을 정도로 의식화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작가는 국민적인 어떤 것도 쓸 수 없을 것이다.[27]

최재서는 "통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허우적대는 대신, 통제의 손이 손가락질하는 커다란 흐름의 선두에 서서 노를 저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문예의 본도"[28]라고 선언하면서 문학을 통한 프로파간다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념이 대중을 사로잡을 때 획득하는 권력은 이념 자체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논리 과정에 존재하므로,[29] 최재서는 국민문학의 내적 논리를 정교하게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30] 최재서는 "당국이 명령하고 문인은 그것에 복종한다는 사고방식으로는 진정한 문예운동은 불가능"[31]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문학의 내적 논리를 구축하는 일에 힘을 쏟는다. 그는 일일이 명령에 의해 문학이 움직이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종합적인 기획과 목표를 수립하고 그것에 협력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재서가 목표로 하는 프로파간다의 수준은 이미 주체의 정체성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아비투스'에

---

27) 최재서, 「국민문학의 요건」, 『전환기의 조선문학』, p. 52.

28) 최재서, 「우감록(偶感錄)」, 『전환기의 조선문학』, p. 121.

29)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지음, 이진우·박미애 옮김, 『전체주의의 기원 2』, 한길사, 2009, p. 273.

30) 최재서에 의하면, 조선문단이 전환의 체제를 세운 것은 1940년 신체제운동 이후이며, 1942년부터 완전한 국민문학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최재서는 국민문학을 "반도의 문학자도 내지의 문학자들과 공통의 이상과 목표 아래서, 같은 국어를 사용하며 이 시대를 꿋꿋하게 살아가자는 문학"으로 정의하고 있다(좌담회 「신반도문학에의 요망」, 『국민문학』 1943년 2월호, 여기서는 문경연 외 8인 옮김, 『좌담회로 읽는 『국민문학』, 소명출판, 2010, p. 412.).

31) 좌담회, 「문예동원을 말한다」, 『국민문학』, 1942년 1월호, 여기서는 문경연 외 8인 옮김, 위의 책, pp. 105-106.

이르는 것이다. 프로파간다가 자신이 프로파간다임을 드러낼 때 그것은 이미 프로파간다로서의 힘을 상실하는 까닭에,[32] 최재서는 작가들에게 "국민의식을 의식하지 않을 정도로 의식화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최재서가 작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풍속의 형태로 일상화된 파시즘의 취향, 즉 이미 친밀한 형태로 대중들이 경험하고 있는 파시즘의 감각을 포착하는 것이다. "새로운 원리는 발견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체득되어야만"[33] 한다든지, "작가는 국민생활 속으로 뛰어들어 몸으로 국민의식을 획득"[34]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문학론이 생경한 규범의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생활화·감정화"[35]된 상태로 체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김종한이 "일본 정신을 몸에 배게 하는 것이 일상의 과제"[36]라고 토로한 바와 같이, 대중이 파시즘적 주체가 되는 과정은 인식보다는 체화의 문제이다. 각성과 인식이 감정과 체화의 프레임[37]과 결부되지 않을 경우 어떤 효과도 볼 수 없다.

> 귀일(歸一)의 미(美)에 대해서도 현대 시인은 더욱 눈을 떠야 할 일이다. 개성의 폐허 속에서 퇴폐미의 조각들을 모으려 헤매기보다는 시

32) 니콜라스 잭슨 오쇼네시(Nicholas Jackson O'Shaughnessy) 지음, 박순석 옮김, 『대중을 유혹하는 무기: 정치와 프로파간다』, 2009, 한울 아카데미, p. 31.

33) 최재서, 「국민문학의 요건」, 『전환기의 조선문학』, p. 55.

34) 최재서, 「신체제의 문학」, 『전환기의 조선문학』, p. 40.

35) 최재서, 「신체제하의 문예비평」, 『전환기의 조선문학』, p. 42.

36) 좌담회 「전쟁과 문학」, 『국민문학』, 1943년 6월호, 여기서는 문경연 외 8인 옮김, 앞의 책, p. 505.

37) 인간은 복잡한 감정과 욕구를 가진 존재라는 점에서 '체화'의 문제는 쉽지 않다. 심광현, 「감정의 정치학: '자기-통치적 주체'의 창조를 위한 새로운 문화정치적 프레임」, 『맑스와 마음의 정치학』, 문화과학사, 2014, p. 398.

야를 더 외부로 향하여 오늘 도회나 농촌이나 할 것 없이 사방에 널리 퍼져 있는 귀일(歸一)의 풍속에서 미를 찾아야만 하지 않을까?[38]

아비투스는 객관적인 사회 구조와 개인적 행동 사이의 매개적 연계이다.[39] 아비투스로서의 취향은 사회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에게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준다. 아비투스는 분포구조를 실천적으로 통제하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사회적 방향감각으로 기능한다.[40] 가령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귀일(歸一)의 미(美)'는 국민문학이 미적 감각에 대한 취향의 형태로 아비투스화된 상태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아름다움은 의지를 자극하는 미적 상태라는 점에서 미학적 성향은 파시즘을 승인하는 데 영향력을 발휘한다. 감각을 경로로 하는 프로파간다는 파시즘을 직관의 상태에서 경험하고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최재서는 1938년에 발표한 「비평과 모랄」에서 "감수성은 사상과의 관련에 의하여 합리화되어야"[41] 함을 견지하고 있었으므로, 쾌(快)의 감각은 '사상'이라는 보다 상위 범주에 의해 조형되고 있었다.

파시즘 체제 하에서 감각에 대한 조형술은 강제적인 양상을 띠기보다는 각급 학교 운동회의 집단 스포츠, 건전 오락의 명랑성 등으로 이미 일상화되어 있다. "국민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과 계급의 차별 없이 국민 전반에 즐겁게 읽혀질 수 있는 문학이어야" 하므로, "국민에게 즐거운 마음의 씨앗을 나눠주는 공복으로서의 사명을 스스로 짊어져야만 한다"[42]는 데서 확인할 수 있는

38) 최재서, 「우감록(偶感錄)」, 『전환기의 조선문학』, p. 133.
39) 조 페인터(Joe Painter) 지음, 최병두 옮김, 「피에르 부르디외」, 마이크 크랭(Mike Crang)·나이절 스리프트(Nigel Thrift) 엮음, 『공간적 사유』, 에코리브르, 2013, p. 410.
40) 삐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 지음, 앞의 책(下) p. 837.
41) 최재서, 「비평과 모랄」, 『최재서 평론집』, 청운출판사, 1960, p. 24.
42) 최재서, 「우감록(偶感錄)」, 『전환기의 조선문학』, p. 122.

바와 같이 '즐거움의 감각'[43]은 프로파간다의 핵심적인 전략이다. '시국적인 것'이라는 당위에 앞서 그것은 이미 재미있고 즐겁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취향은, 프로파간다의 슬로건보다 훨씬 더 직관적인 경험으로 다가온다는 점에서 프로파간다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 시대의 변천과 함께 미의 표준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또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략) 한 사람 한 사람 아동의 어떤 자세나 동작에도 미를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오늘 정말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초등학교 전 아동의 분열 행진을 볼 때이다. 거기에는 집단미라든가 규율미 같은 형식미학적 개념만을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협동의 아름다움이 있다. 각각의 인간이 자기의 힘을 최대로 발휘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코 자의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의 전체적인 의사를 가지고 행해지고 있다.
>
> (중략) 그런 점에서 현대 전쟁은 협동미의 극치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때때로 신문지상을 통하여 편린을 전하고 있는 우리 육·해·공의 협동하에 감행되는 적전 상륙 등의 전모가 확실해진다면, 현대인의 미의식을 휩쓸 것이라고 상상한다. 다만 이러한 전쟁의 협동미를 목표로 해서 이를 표현하는 데 성공한 작품이 의외로 적은 것이 섭섭할 뿐이다.[44]

현실의 국민 자체는 다양하고 서로 모순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균질적 공동체로서의 국민'이라는 이데올로기는 사실상

---

43) 대표적인 것이 '명랑의 감각'이다. 명랑의 감각이란 제국으로부터 발신되어 제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제국의 감각이다. '명랑의 감각'은 제국/식민지 시스템의 영구적 지속에 유용하며 해가 되지 않도록 순치된 상태를 전제하고 있다. '명랑의 감각'은 또한 쾌의 감각에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거친 에너지가 억제되고, 대신 생기 넘치는 힘과 활력 있는 에너지의 공급을 보장하는 '유용한 상태의 쾌'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곽은희, 앞의 논문, pp. 376-378을 참조할 것.

44) 최재서, 「우감록(偶感錄)」, 『전환기의 조선문학』, p. 131.

하나의 픽션[45]에 불과하다. 인용문에서 묘사되는 국민의 풍경은 그 기원에 자리잡은 역사를 소거하고, 그 자리에 '아름다움'이라는 미적 감각을 채워 넣음으로써 완성된 것이다. 아름다움의 근원에 존재하는 역사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파시즘으로 인해 빚어지는 일들을 미학화[46]하는 것이다. 인용문에서처럼 현대전쟁이 '협동미의 극치'로 묘사되는 동안 전쟁의 파괴성은 휘발되고, 통일미를 갖춘 미적 장면이 연출된다.[47] 특히 최재서는 "많은 것이 하나의 의사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아름다움"이라는 등식을 통해, 신체제가 요구하는 가치 체계에 조응하는 '미적 감각'을 창출해 낸다. "자기 자신 한 사람으로는 의미도 가치도 없는 존재이며, 국가에 의해서 처음으로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는다고 하는 자각으로부터 문학상의 국민의식은 출발한다"[48]든가 "가치의 근원은 생활전일체로서 민족 또는 국가이며, 가치의 생산자는 전일체의 분지(分枝)로서의 개인 또는 국민"[49]이라는 논리는 '협동의 아름다움' 속에서 미학적으로 재현된다.

닭은 울고
시냇물은 흐르고

---

45) 니시카와 나가오(西川長夫) 지음, 윤대석 옮김, 『국민이라는 괴물』, 소명출판, 2002, p. 87.

46)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 지음, 최성만 옮김,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1930, 제3판)」,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 사진의 작은 역사 외』, 도서출판 길, 2008, p. 150.

47) 당시 전쟁은 숭고하다고 공인된 것 중 하나였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 이후 총력전을 위한 동원체제가 식민지 조선에 더욱 강고해지면서 제국 신민으로서의 자기각성과 자기규율은 도덕적으로뿐만 아니라 미학적으로도 선양되었다(이에 대해서는 황종연, 「동양적 숭고: 일본 제국 풍경 중의 석굴암」, 백영서·김명인 엮음, 『민족문학론에서 동아시아론까지 - 최원식 정년기념논총』, 창비, 2015, p. 139를 참조함).

48) 최재서, 「국민문학의 입장」, 『전환기의 조선문학』, p. 94.

49) 최재서, 같은 글, 같은 책, p. 96.

새들은 노래하고
호수는 반짝이고
푸른 들판은 햇빛 속에 잠이 들었다.
노인이며 어린이
젊은이와 함께 일하고
풀 먹는 소는
고개 들지 않아
마흔 마리가 마치 하나 같다.

이 시는 워즈워드의 '3월의 노래'이다. 최재서가 이 시를 굳이 인용하여 보여준 까닭은 이 시가 "전체를 관통하는 율동미"를 지니고 있으면서, "사람과 소가 하나가 되어 묵묵히 하나의 의사, 즉 생산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50]기 때문이다. 이 시에서 그리고 있는 전원의 아름다움이나 노동의 아름다움은 "전체로부터 절연된 개성"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신체제기 국민문학론의 정신과 일맥상통한다. 당시 중학생들이 이 시를 가장 많이 인용했다는 사실은 "자기 자신 한 사람으로는 의미도 가치도 없는 존재이며, 국가에 의해 처음으로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는다고 하는 자각으로부터 문학상의 국민의식은 출발한다"[51]는 '국민문학'의 규범이 '취향'의 형태로 일상적 경험과 정서에 스며들고 있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4. '로컬리티'라는 전략

국민문학을 구축하는 가운데 최재서가 어떠한 전략을 구사했는

50) 최재서, 「우감록」, 『전환기의 조선문학』, p. 132.
51) 최재서, 「국민문학의 입장」, 『전환기의 조선문학』, p. 94.

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민문학'이라는 담론 안에서[52] 조선문학의 개념이 어떠한 변용과정을 거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조선문학의 장(場)을 동아시아로 확장함으로써 멸망의 절망을 비켜나가고자 한다.

> 나는 조선문학의 멸망을 외치는 절망론에 대해서나 조선문학을 말살하려고 하는 획일론에 대해서도 찬성하지 않는다. 다만 그 취지는 말할 것도 없이, 조선의 창조적 능력을 살려서 신일본 문화 건설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도의 문화인이 시세에 눈을 잘 떠서 대승적 문화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와 동시에 내지동포가 큰 도량을 갖고 신참 조선문학을 포용함으로써 너그럽게 키워가는 이해와 열의를 가는 것이 필요하다. (중략) 그와 동시에 외지문학을 포용함으로써 일본문학의 질서는 어느 정도 재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도 해야 한다. 적어도 조선문학이 국민문학적 체제를 취함으로써 일본문학의 질서에 어떤 종류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53]

최재서가 확보하고자 하는 발화지점은 '절망론'이나 '획일론'을 넘어 '조선의 창조적 능력'을 살리되 '신일본 문화 건설'과 양립할 수 있는 곳이다. 그 일차적인 동기는 '조선문학 멸망의 절망론'을 피하기 위해서이지만, 최재서는 발언의 수위를 점점 더 높여가며 "일본문학의 질서를 어느 정도 재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요

---

52) 윤대석은 "일본의 국민문학은 국민적 정체성의 핵심을 전통적인 것"에 두었으며, 따라서 "일본의 확장에 따라 발생하는 타민족의 포용에 대한 고려는 없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조선의 '국민문학'은 이러한 일본의 국민문학에 대한 '모방'과 '차이', 즉 '황도주의'와 '신지방주의'라는 두 갈래로 존재한다. 윤대석에 따르면, 조선 문학자의 부류를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은 중점의 차이이고, 작가 개인으로 보면 이것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윤대석, 『1940년대 '국민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2. p. 59.

53) 최재서, 「조선문학의 현단계」, 『전환기의 조선문학』, pp. 72-73.

구한다. 이것은 단순히 담론상의 레토릭이 아니라 최재서가 실현 가능하다고 믿었던 비전이다. 여기에는 제국과 공존하면서도 제국의 이해관계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구상이 들어있다. 여기에 이르면 최재서에게 '민족적이냐 제국적이냐'는 더 이상 양립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최재서는 조선이 조선만으로 존재한다는 식의 글쓰기 방식을 지양하고[54], '큰 국민성 속에서 살아나는 특수성'[55]으로서의 조선문학을 기획한다. 『국민문학』 1943년 2월호에 실린 좌담회 「시단의 근본문제를 말한다」에서 최재서는 "조선이라는 특수성이 일본이라는 큰 보편성으로 융화되어 가는 것"이라는 데라모토 기이치(寺本喜一)[56]의 발언에 대해 "낡은 사고방식으로 뒷받침된 특수성"이라고 비판하며, "그런 특수성은 그대로 두면 자멸할 수밖에 없"[57]음을 주장한다. 대신 최재서는 지방문학으로서의 조선문학의 지위를 이론화하는 데 주력한다. 이때 지방문학이란 유진오의 표현대로, 단순한 로컬컬러의 지방문학이 아니라 "무언가 철학적인 새로움과 가치를 가진 것"[58]을 의미한다. 그 속에는 조선문화의 전환으로 말미암아 제국의 성격을 결정짓는다는 야심찬 가치가 내포되어 있다. 앞서 보았던 '귀일(歸一)의 미' 혹은 '협동미'에서 구현되는 전체로서의 아름다움이 국민문학론의 원경(遠境)이라면, "그것(국민문학)은 하나의 덩어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59]라는 논리는 국민

54) 최재서, 「신반도문학에의 요망」, 『국민문학』, 1943년 3월호, 여기서는 문경연 외 옮김, 앞의 책, p. 417.
55) 최재서, 「시단의 근본문제를 말한다」, 『국민문학』, 1943년 2월호, 여기서는 문경연 외 옮김, 앞의 책, p. 389.
56) 데라모토 기이치(寺本喜一)는 최재서의 경성제대 영문학과 선배이다.
57) 「시단의 근본문제를 말한다」, 『국민문학』, 1943년 2월호, 여기서는 문경연 외 8인 옮김, 앞의 책, pp. 388-389를 참조함.
58) 같은 글, 같은 책, p. 291.
59) 최재서, 「조선문학의 현단계」, 『전환기의 조선문학』, p. 78.

문학론의 근경(近境)이다. 이 근경에는 원경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전략이 담겨 있다.

지방문학에 관한 논쟁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조선의 특수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였다. "조선문학이 지방문학이라고 할 경우, 지방이라는 단어는 종래와는 상당히 다르게 해석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점에 관해서는 시인 김종한(金鐘漢) 군이 대단히 진보적인 견해를 발표하고 있으므로, 여기 그 일절을 인용해 놓는다"[60]라고 최재서가 밝힌 바와 같이, 신지방주의에 관한 최재서의 구상은 김종한에게 영향 받은 바가 크다.[61] 김종한은 「새로운 반도문단의 구상 좌담회」에서 "윤리적으로 생각할 경우, 동경이 중앙이 아니라도 된다. 몇 개라도 지방이 모여서 하나의 중앙이 된다. 반드시 동경이 중앙인 것은 아니다"[62]는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 바 있다.[63] 그러나 좌담회에 참석한 다나카 히데마스(田中)는 김종한의 발언에 대해 "그러나 이것을 정치적으로 말한다면 반대"[64]라고 반박하며, 김종한과 같은 주장이야말로 내지문단으로부터 떨어져 민족적인 것만 하려고 하는 낡은 무리들의 것이라고 비판한다. 국민문학과 지방문학 간의 관계를 이론화하는 작업은 제

60) 최재서, 같은 글, 같은 책, p. 77.

61) 김종한의 신지방주의는 당시 조선의 여러 작가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이석훈 역시 김종한의 신지방주의 이론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에 대해서는 신미삼, 『이석훈 문학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8. pp. 230-248.

62) 「新しい半島文壇の構想 座談會」, 『綠期』, 1942. 4. p. 80.

63) 오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는 김종한이 "조선의 옷을 입고 조선 온돌에 누워 있어도 훌륭한 황민(皇民)이 될 수 있다"고 굴욕적인 말을 하였으나, 그 진의는 '황민'을 강요당한 오늘날이라도 조선의 민족풍습과 생활감정을 지켜야한다는 데 있었다고 해석한다. 오오무라 마스오는 김종한이 조선적인 것을 사수하는 데 그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평가하고 있다(이에 대해서는 오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 「김종한(金鐘漢)에 대하여」, 『윤동주와 한국문학』, 소명출판, 2001, pp. 256 - 257을 참조함).

64) 「新しい半島文壇の構想 座談會」, 『綠期』, 1942. 4. p. 80.

국과 식민지 사이에 치열한 각축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문제였다.

다음은 좌담회 「조선문단의 재출발을 말한다」이다.

> 실제로 그런 구체적인 작품이 있으면 그것을 앞에 두고 논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영국의 작가 중에 콘래드(Joseph Conard)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네델란드 인으로, 나이 들어서 영어를 배우고 마침내 영국에 귀화해서 결국에는 영국작가로 남았는데, 영국인으로서는 좀처럼 쓸 수 없는 새로운 경지를 영문학 안에서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지금까지 조그맣게 뭉쳐있던 조선의 작가가 일본문학의 일익으로 일어설 경우, 결국 일본문학 속에 어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큰 의미에서의 공헌을 하게 되지요. 그것을 지나치게 평이하고 평면적으로 생각하면 결국 지금까지 자기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하는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는 지금의 젊은이들이 크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역시 어떤 확고한 목표와 자신감을 주는 것이 특히 필요합니다.[65]

좌담회에 참석했던 가라시마 다케시(辛島驍)[66]가 "오늘날 조선적인 것을 일본문학에 특별히 추가하려는 의식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을 강조하는 데는 뭔가 과오가 있다고 봅니다"[67]는 입장을 보이자 최재서는 이에 대해 즉각 반박하며, "저는 그것(조선적인 것)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이론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68]라고 주장한다. 최재서는 "국민화하는 경우, 지금까지의 문화를 모두 없애야 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

65) 좌담회, 「조선문단의 재출발을 말한다」, 『국민문학』, 1941년 창간호, 여기서는 문경연 외 8인 옮김, 앞의 책, pp. 37-38.

66) 발표 당시 경성제대 법문학부 교수.

67) 좌담회, 「조선문단의 재출발을 말한다」, 『국민문학』, 1941년 창간호, 여기서는 문경연 외 8인 옮김, 앞의 책, p. 36.

68) 같은 글, 같은 책, 같은 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것"[69]이라고 설명하며 '콘래드(Joseph Conard)'를 그 예로 든다. 최재서는 콘래드를 가리켜 "마침내 영국에 귀화해서 결국에는 영국작가로 남았는데, 영국인으로서는 좀처럼 쓸 수 없는 새로운 경지를 영문학 안에서 개척"했다고 높이 평가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최재서가 비(非)제국 출신 작가들에 대해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엿볼 수 있다. 최재서가 콘래드를 예로 든 데에는, 비(非)제국 출신 작가야말로 제국의 확장 과정에 수반된 본질을 통찰하고 감지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포부가 스며들어 있다.

> (중략) 조선의 지방색을 띠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팔려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 그런 심사가 한심스러운 것이다. 조선의 지방색을 띰으로서 조선문학의 독창성이 만들어진다면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 다만 애처로운 모습으로 중앙 문단에 빌붙으려는 일만은 그만두길 바란다. 또 중앙문단도 조선문단을, 지방색을 매물로 하는 볼거리쯤의 존재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70]

비제국 출신 작가로서의 최재서의 면모는 지방색에 대한 논의에서 보다 뚜렷하게 드러난다. 최재서는 조선문학의 독창성이 제국의 조망권 안에서 '볼거리쯤의 존재'로 타자화되는 것을 거부하고, 조선의 지방색을 팔려고 하는 '한심한' 심사를 비판한다. 국민문학론 내에서 조선문화가 어떤 위상학적 구도 속에 배치되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공간을 다중적이고 다양체적인 것으로, 공간적 배치를 '운동 중에 있는 지평'으로 인식할 때,[71] 조선문화의

---

69) 같은 글, 같은 책, p. 39. 함께 좌담회에 참여했던 백철의 경우, "지금까지 몸에 밴 것을 하나하나 아까워해서는 진정한 문학이 탄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최재서와는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70) 최재서, 「우감록(偶感錄)」, 『전환기의 조선문학』, p. 136.

71) 마르쿠스 도엘(Marcus A. Doel), 「지리학에서 글렁크 없애기 : 닥터 수

지위는 조선문화를 공간화(spacing)하는 과정 속에서 결정된다. 김종한이 지방에 중앙을 건설하려는 지정학적 전략을 구사하여 '지방인다운 국민의식'을 재출발의 기점으로 삼았다면,[72] 최재서는 조선문화를 '전통의 유지와 국체 명징'과 '이민족 포용과 세계 신질서의 건설'의 중간지대에 배치한다. "일본은 어떻게 이민족을 포용하면서 일본 문화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끊임없는 자극이 되고,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것이 앞으로의 조선문학"[73]이라는 논리를 토대로 제국과 식민지 사이에 형성되던 '원본과 모방'의 관계를 역전시키고자 한 것이다.

로컬리티를 거점으로 한 최재서의 논의는, 제국이 꿈꾸는 헤게모니를 가로지르는 흐름들이 다방면에서 투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로컬은 제국주의라는 역사적 경험이 제국과 식민지 쌍방에 관련된 공통의 것[74]임을 보여주는 장소이다. 사이드(Edward W. Said)가 『문화와 제국주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국과 식민지를 이항대립적 배치 속에 두는 것은 그 명징성과 단순함으로 말미암아 자아의 정체성을 확고히 밝히는 데는 기여하지만, 제국주의라는 역사적 경험이 어떻게 뒤섞이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데에는 그다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적어도 조선문학이 국민문학적 체제를 취함으로써 일본문학의 질서에 어떤 종류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을 것"[75]이라는 발언 속에는 이항대립적인 배치로는 감지되지 않는 '상호적 주체성'이 자리 잡고 있다. 최재서는 '이민족 포용과 세계 신질서 건설'이라는 이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식민

스와 질 들뢰즈 이후의 공간과학」, 마이크 크랭·나이절 스리프트 엮음, 앞의 책, pp. 220-222.

72) 「新しい半島文壇の構想 座談會」, 『綠期』, 1942. 4. p. 79.

73) 최재서, 「조선문학의 현단계」, 『전환기의 조선문학』, p. 76.

74) 에드워드 W. 사이드(Edward W. Said) 지음, 『문화와 제국주의』, 문예출판사, 2005, pp. 35-37.

75) 최재서, 「조선문학의 현단계」, 『전환기의 조선문학』, p. 73.

지와의 교섭은 필수적이이며, 그런 만큼 '로컬리티'는 공적인 영역 안에 배치되어야 함을 국민문학에 관한 논의를 통해 풀어낸 것이다. 최재서는 '아비투스로서의 국민문학론'의 다른 한 편에 '로컬리티로부터 출발하는 국민문학론'을 구축함으로써 '소수자는 꼭 필요하지만 환영할 수 없다'[76]는 분노의 지리학을 넘어서고자 했다.

5. 나가며

최재서의 국민문학론은 '국가'를 최종심급으로 두었다는 점에서 식민 권력과 국가 권력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접합되는지, 또한 이로 말미암아 식민 권력과 국가 권력이 왜 장차 쌍생아가 될 운명에 처하게 되는지[77] 그 맹아를 보여준다. 감각의 조형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구조적인 접합지점은 국민문학에 관한 윤리를 구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작품을 창작하는 작가의 감각과 작품을 향유하는 독자의 감성까지 조형하고자 했던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감각에 대한 조형술은 문학을 비평하는 가치체계부터 문학을 감상하고 향유하는 심미적인 감각에 이르기까지, 국민문학의 구조를 익히고 받아들이는 의식적인 내면화부터 부지불식간에 스며드는 무의식적인 포섭에까지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것은 특히 어떠한 대상을 아름답다고 느끼는 미적 감각에까지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취향과 감성에 깊이 뿌리내리고자 하였다. '감각의 조형술'은 국민문학의 아비투스가 식민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포스트식민 시기까지 지속되도록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동한다.

프로파간다 메커니즘에서 '감각'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프로

76) 아르준 아파두라이(Arjun Appadurai) 지음, 장희권 옮김, 『소수에 대한 두려움 - 분노의 지리학』, 에코리브르, 2011, p. 67.
77) 빠르타 짯데르지(Partha Chatterjee) 지음, 앞의 책, p. 6.

파간다는 호불호의 감각을 경로로 자연화되기 때문에 자기정체성과 분리할 수 없을 만큼 주체와 밀착된다. 그것이 바로 아비투스로서의 제국이다. 이렇게 볼 때 최재서 자신이 "나는 어린 시절부터 일본말과, 그 예의바름과, 언제나 생기 있는 학문적 호기심과 특히 메이지문학이 좋았었다"고 했었던 고백은 요컨대 아비투스로서의 제국을 자기서사화한 것이다. "하나하나 일본국가와 연결시켜 생각하려 하지는 않았다"는 고백은 '취미' 혹은 '교양'의 형태로 스며든 제국이란 하나하나 따져 되물을 수 없을 만큼 깊숙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비투스가 개인이 구조에 의해 장악되는 경로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아비투스는 제국이 식민지에 이르는 경로이기도 하지만, 식민지에서 공적 영역으로 이르는 경로이기도 하다. 한나 아렌트의 사유를 빌려 생각해 보면, 공적 자유를 추구하는 과정은 공공 영역(public realm)을 목격하고, 자신들을 드러낼 수 있고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공적 공간(public space)을 확보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78] 최재서의 국민문학론에서 이 같은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국민문학으로서의 조선문학', 즉 '로컬리티' 문제를 다룬 부분이다. 최재서는 제국이 공간적 차원에서 동아시아를 포섭했다는 실제적인 조건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역사-지리학적 배치 속에 절멸되지 않고 병존할 수 있는 조선문학의 자리를 만들어 낸다. 이 작업은 동아시아라는 공간을 입체적으로 상상하고, 다중적 공간으로서의 동아시아 안에 조선문학을 배치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조선문학의 개념을 확대하지 않는 한, 조선문학 멸망의 절망론을 피할 수 없다"[79]고 판단한 최재서는 집필자를 내선인 공동으로, 독자를 대

78)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지음, 홍원표 옮김, 『혁명론』, 한길사, 2005, pp. 216-217.
79) 최재서, 「조선문학의 현단계」, 『전환기의 조선문학』, p. 71.

동아 제민족으로 확장함으로써 그 절망론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제국 안에서는 개별 국민국가의 존재나 식민지들의 민족주의가 허용되지 않는 대신, 제국은 식민들의 경계를 열고 지역과 지역을 쉽게 만나게 한다.[80] '국민국가'라는 틀을 넘어 제국과 식민지를 바라보면, 제국은 식민지로 하여금 또 다른 세계와 조우하도록 해주는 기회[81]이기도 하다. 공간적 구획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살펴보면, 동아시아라는 영토와 제국/식민지 사이에는 좀더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문화지형학이 놓여 있다. '동아' 혹은 '대동아'가 1941년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남방으로의 확전(擴戰)과 더불어 구성된 개념임에는 틀림없지만,[82] 식민지 지식인들의 지리적 상상이 제국의 그것과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다. 제국의 비전이 현실의 지리적 공간과 결탁하는 것[83]과 마찬가지로, 식민지의 욕망 역시 상상적 지리를 만들어 내는 데 개입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보면, 우리는 '동아시아'를, 동일한 지리적 대상을 눈앞에 두고 상이한 비전을 품게 되는 '다중적 공간'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최재서가 구상했던 '로컬리티'라는 전략은 '동아시아'라는 동일한 지리적 대상을 눈앞에 두고 상이한 비전을 품게 되는 제국과 식민지의 첨예한 긴장을 보여준다.

---

80) 한석정, 「지역체계의 허실 - 1930년대 조선과 만주의 관계」, 『한국사회학』 제37집 5호, 2003. 11. p. 57.

81) 이 과정에서는 '종속'과 '자기변신'은 중첩되어 있다. 따라서 종속과 자기변신 중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압도할 만큼 우세하다고 할 수 없다. 동아시아가 근대 세계로 참가하기 위해서는 '식민지 사회로의 전락'이라는 '종속'과 '자본제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자기변신'의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었다(강상중, 「사라지지 않는 '아시아'의 심상지리를 넘어서」, 강상중 엮음・이강민 옮김, 『공간 아시아를 묻는다.』, 2007, 한울, p. 95).

82) 고야스 노부쿠니(子安宣邦) 지음, 이승연 옮김, 『동아・대동아・동아시아 : 근대 일본의 오리엔탈리즘』, 역사비평사, 2005, p. 85.

83) 에드워드 W. 사이드(Edward W. Said) 지음, 박홍규 옮김, 『문화와 제국주의』, 2004, p. 124.

'이민족 포용과 세계 신질서 건설'이라는 이상에는 서구적 근대를 넘어설 수 있는 윤리적 지평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재서는 이러한 가치에 호소함으로써 조선문학의 자리를 확보하고자 했다. 조선문학의 특수성, 즉 '로컬리티'는 제국의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로컬리티'는 최재서가 '국민문학'이라는 공적 영역 안에 '조선문학'을 배치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다. '국민문학으로서의 조선문학'이라는 독특한 로컬리티는 '공적 공간(public space)'을 확보함으로써 사적인 영역으로 물러나지 않기 위한 방도였다. 최재서가 국민문학론을 토대로 구사했던 프로파간다의 복합적인 면모는 바로 이러한 아비투스와 로컬리티 사이, 그 틈새에 존재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綠期』, 1942. 4.
문경연 외 8인 옮김, 『좌담회로 읽는 『국민문학』, 소명출판, 2010.
최재서, 『전환기의 조선문학』, 노상래 옮김, 영남대 출판부, 2006.
최재서, 『문학과 지성』, 1938.
최재서, 『최재서평론집』, 청운출판사, 1960.

2. 논문

강상중, 「사라지지 않는 '아시아'의 심상지리를 넘어서」, 강상중 엮음 · 이강민 옮김, 『공간 아시아를 묻는다.』, 한울, 2007, pp. 83-124.
곽은희, 「전시체제기 놀이의 프로파간다화와 식민지 규율」,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동아시아문화연구』 제50집, 2011. 11. pp. 355-388.
김철, 「식민지의 복화술사(複話術師)」, 『복화술사들 - 소설로 읽는 식민지 조선』, 문학과지성사, 2008, pp. 156-167.

심광현, 「감정의 정치학: '자기-통치적 주체'의 창조를 위한 새로운 문화정치적 프레임」, 『맑스와 마음의 정치학』, 문화과학사, 2014, pp. 393-437.
한석정, 「지역체계의 허실- 1930년대 조선과 만주의 관계」, 『한국사회학』 제37집 5호, 2003. 11. pp. 55 - 79.
마르쿠스 도엘(Marcus A. Doel), 「지리학에서 글렁크 없애기: 닥터 수스와 질 들뢰즈 이후의 공간과학」, 마이크 크랭 · 나이절 스리프트 엮음, 『공간적 사유』, 에코리브르, 2013. pp. 201-232.
발터 벤야민 지음, 최성만 옮김,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 사진의 작은 역사 외』, 도서출판 길, 2008, pp. 97-150.
조 페인터(Joe Painter) 지음, 최병두 옮김, 「피에르 부르디외」, 마이크 크랭(Mike Crang) · 나이절 스리프트(Nigel Thrift) 엮음, 『공간적 사유』, 에코리브르, 2013, pp. 405-436.
황종연, 「동양적 숭고: 일본 제국 풍경 중의 석굴암」, 백영서 · 김명인 엮음, 『최원식 정년기념논총 민족문학론에서 동아시아론까지』, 창비, 2015, pp. 109-142.

3. 단행본

신미삼, 『이석훈 문학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8.
윤대석, 『1940년대 '국민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2.
고야스 노부쿠니(子安宣邦) 지음, 이승연 옮김, 『동아 · 대동아 · 동아시아: 근대 일본의 오리엔탈리즘』, 역사비평사, 2005.
니카무라 미츠오(中村光夫) · 니시타니 게이지(西谷啓治) 외 지음, 이경훈 · 송태욱 · 김영심 · 김경원 옮김, 『태평양전쟁의 사상- 좌담회 〈근대의 초극〉과 〈세계사적 입장과 일본〉으로 본 일본정신의 기원』, 이매진, 2007.
니시카와 나가오(西川長夫) 지음, 윤대석 옮김, 『국민이라는 괴물』, 소명출판, 2002.
오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 「김종한(金鐘漢)에 대하여」, 『윤동주와 한국문학』, 소명출판, 2001.
진노 유키((神野由紀)) 지음, 문경연 옮김, 『취미의 탄생- 백화점이 만든 테이스트』, 소명출판, 2008.
니콜라스 잭슨 오쇼네시((Nicholas Jackson O'Shaughnessy) 지음, 박순석

옮김,『대중을 유혹하는 무기: 정치와 프로파간다』, 한울 아카데미, 2009.
로제 카이와(Roger Caillois) 지음, 이상률 옮김,『놀이와 인간』, 문예출판사, 1994.
빠르타 짯떼르지(Partha Chatterjee) 지음, 이광수 옮김,『민족주의 사상과 식민지 세계』, 그린비, 2013.
삐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지음, 최종철 옮김,『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La Distinction-critique sociale du jugement)』下, 새물결, 2005.
아르준 아파두라이(Arjun Appadurai) 지음, 장희권 옮김,『소수애 대한 두려움- 분노의 지리학』, 에코리브르, 2011.
아쉬스 난디(Ashis Nandy) 지음, 이옥순 옮김,『친밀한 적』, 신구문화사, 1993.
안토니오 네그리(Antonio Negri)·마이클 하트(Michael Hartdt) 지음, 윤수종 옮김,『제국』, 이학사, 2007.
요한 호이징하(Johan Huizingga) 지음, 김윤수 옮김,『호모루덴스』, 까치, 2007.
에드워드 W. 사이드(Edward W. Said) 지음, 박홍규 옮김,『문화와 제국주의』, 문예출판사, 2005.
테리 이글튼(Terry Eagleton) 지음, 여홍상 옮김,『이데올로기 개론』, 1994.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지음, 홍원표 옮김,『혁명론』, 한길사, 2005.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지음, 이진우 · 박미애 옮김,『전체주의의 기원2』, 한길사, 2009.
Walter Mignolo, *The Darker Side of the Renaissance: Literacy, Territoriality, and Colonization*,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1995.

[Abstract]

A Molding Technique of the Senses : Between Habitus and Localities

- About the National Literature of Choe Jae-Seo -

Kwak, Eun-Hee

The national literature of Choe Jae-Seo was not only to build the ethics of the national literature, but also to manipulate a sense of artists to create a work and the emotion of readers to enjoy their works. It did not stay on national literature as a norms, and was located as Havitus to mediate between social structure and individual behavior. This molding technique of senses works as a key factor that makes Havitus of national literature to last through to the post-colonial period from the colonial period.

However, Havitus is the path that empire reach to the colony, and at the same time, it is also the path which leads into the public domain from the colony. Choe argued that the peculiarity of Korean literature, namely 'locality' is necessary in order to ensure the ethical validity of the empire. For him, 'locality' was one of the strategies for deploying 'Chosun literature' in public areas, called 'national literature'. An unique locality, 'Korean literature as national literature', was a way to not retreat into the private sphere by gaining public space. The multiple aspects of propaganda that Choe was speaking on the basis of national literary theory, just exists between Habitus and locality.

Key words: a molding technique of the senses, colony, empire, interstice, hobby, habitus, sense, propaganda, Choe Jae-Seo, theory of national literature, locality, local

곽은희
소속: 영남대학교 기초교육대학 교양교육원
주소: 경산시 대동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기초교육대학 교양교육원
전화번호: 053-810-2293
전자우편: ehk100@ynu.ac.kr

이 논문은 2015년 3월 28일 투고하여
2015년 4월 1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5년 4월 15일 게재 확정함.